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예술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2회 KAC청소년 단편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오늘 그들의 날씨는 맑음
수상내역	장려상
작가	박지원
공모분야	시나리오
시놉시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직 스스로의 삶에 주체가 되지 못한 이들에게 인생을 돌아 볼 기회가 될 만한 작은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한다.

제목

오늘, 그들의 날씨는 맑음

주제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주체가 되어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내야 한다.

기획 의도 및 작의

나는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눈다. 그 시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대학이듯 학생인 우리들의 대화 거리는 주로 입시였다.

내 주변의 많은 친구들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장래희망이나 자신이 지향하는 삶이 무엇인지 선뜻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같았다. 그들은 인생의 목표나 삶에 대한 자기만의 가치관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 친구들을 보며 생각했다. 아직은 **학생이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보지 못했겠지. 하지만, 곧 그것은 청소년에게만 극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슨 삶을 살고 싶은지를 찾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날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보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이십대 중반인 언니에게서 들은 언니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에서도, 오십을 넘어선 아빠에게서 들은 회사 동료들의 이야기에서도, 인터넷에서 읽은 어른들의 이야기에서도 아직 자신의 인생의 목표나 가치를 찾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경험이 적어 아직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참된 가치와 목표를 찾지 못한 사람
자신이 바라던 인생이 아닌 현실에 억지로 끼워 맞춰져 있는 사람
자신이 쳐다봐야 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찾지 못한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직 스스로의 삶에 주체가 되지 못한 이들에게 인생을 돌아 볼 기회가 될 만한 작은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한다.

등장인물

박용철 / 32세 / 남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없는 인물이다.

주위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항상 의기소침 해져 있다.

스스로에 대해 당당하지 못한 삶을 살던 중, 친구 상민을 보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

말수가 적고 일상에 무기력해 보이지만 생각과 배려심이 깊다.

한상민 / 32세 / 남

용철과 연락하는 유일한 친구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강한 인물이다. 번지르르한 일상에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지만 어릴 때부터 외롭게 자란 탓에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인생에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친구 용철에 의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된다. 성격이 강하고 이기적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다.

강미연 / 35세 / 여

정식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 이지만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빚게 되는 인물이다.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간 탓에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살아왔다. 무뚝뚝한 성격을 가진 남편 정식에게 불만과 서운함이 많지만 그것마저 속에 담아 주기만 한다. 취미삼아 일하던 음식점에서 상민을 알게 되고 몇몇하지 못한 관계로 발전한다. 애교가 많고 다정다감하지만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 생각한다.

권정식 / 40세 / 남

미연의 남편으로 현재의 삶에 딱히 불만도, 욕심도, 기쁨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인물이다. 어린나이에 자신에게 시집온 아내 미연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무뚝뚝한 성격 탓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잘 하지 못한다. 아내에게 특별히 잘해준 건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부터 뭔가 달라진 아내를 수상쩍어 하며 상용 심부름센터를 찾는다. 다혈질이고 참을성이 없지만 한편으론 소심하고 여린 면이 있다.

줄거리

아는 형의 부탁으로 며칠간만 일을 봐준게 벌써 4년째. 용철은 상용 심부름센터의 직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얼마 전에 받은 동창회 문자가 용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용철은 친구들을 만나기는커녕 고향집에 내려가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다. 남들에게 알려주기 멋쩍은 직업에다 30대 중반인 나이에다 불구하고 변변치 못한 형편인 자신을 자책하던 용철은 이번 명절에도 고향집에 내려가지 못하겠다며 한숨을 쉰다. 그때, 오늘 저녁 술 한잔 하자는 상민의 문자가 온다. 용철과 상민은 포장마차에서 만난다. 상민은 술맛 떨어지게 왜 이런 곳에서 만나는 거냐며 투덜댄다. 이번 명절 때는 고향에 내려 갈 거냐는 상민의 물음에 용철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하긴, 심부름 센터에서 일하는 자식모습 보면 부모님 속이나 상하지.

상민의 말을 끊고 용철이 묻는다.

너는 부모님 뵈러 가냐?

그러자 상민이 이번 명절에는 해외여행이나 다녀올 계획이라고 대답 한다. 명절연휴가 아니면 시간이 없다며 오랜만에 해외에서 여유를 즐기겠다는 상민이 부러운 용철은 소주만 들이킨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용철과 상민. 중학교 입학 앞두고 상민은 부모님의 일자리를 따라 도시로 이사를 간다. 상민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자란다. 20년이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상민은 대기업 간부가 되어 남부러운 것 없이 호화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 용철은 그런 상민을 보며 웬지 모를 거리감과 부러움, 그리고 열등감마저 느끼게 된다. 용철은 상민을 떠올릴 때마다 경제적 여유가 없던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심부름센터에서 4년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한심해하기도 한다. 용철은 얼마 안되는 월급을 받고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자신과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살만큼 여유로운 상민을 비교해가며 점점 더 움츠러든다.

하지만 사실 상민은 어릴 때부터 외로움 속에 찌들어 살며 정이라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없었다. 돈은 많지만 시간이 없던 부모 밑에서 형제자매도 없이 공부만 하며 학창시절을 보낸 상민. 상민은 그의 부모가 그랬듯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에 목매기 바빴다.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기고 난 후 둘러본 상민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명절 날 해외여행 날짜를 맞춘 것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부모님께서는 딱히 상민을 보고 싶어 하시지도 반기시지도 않으실 것 같았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탓에 명절을 홀로 보내는 것쯤은 익숙한 상민이었다. 스스로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면 더욱 더 그것을 숨기려고 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이 무거운 것 조차 숨길 수 없었다. 상민은 소주를 입속에 털어 넣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민은 회사 앞, 자주 가던 음식점에서 일하는 미연을 알게 된다. 상민은 엄마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애정과 관심을 미연에게서 느끼며 그녀와 특별한 감정을 싹틔운다. 하지만 미연은 이미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이다. 상민은 미연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녀와의 사이를 털어 놓지 못한다.

어느 날, 한 사내가 용철이 일하고 있는 ‘상용 심부름 센터’를 찾아온다. 사내의 이름은 ‘정

식' 으로 그는 어느 날 부터 아내 미연이 이상해졌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밥은 꼬박꼬박 차려주던 사람이 갑자기 아침부터 도시락을 싸들고 집을 나서질 않나 생전 미용실은 일 년에 한 두 번 밖에 가지 않던 사람이 요즘엔 일주일에 두 세 번 씩 머리모양을 바꾸질 않나 휴대폰은 서랍 안에 둔 채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질 않나 수상한 점이 한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식은 몇 개월 전부터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다며 아내의 외도를 조사해 달라 부탁한다. 의뢰를 맡은 용철은 정식의 요구대로 미연의 뒤를 쫓는다. 그리고 미연을 조사한지 3일째 되던 날, 놀랍게도 그녀의 외도상대가 자신의 친구 상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남부럽지 않게 번지르르한 일상을 보내며 누구보다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넘치던 상민이었다. 간혹 가다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아직은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 싶어.' 라며 웃던 상민이었다. 언제나 당당했던 상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떳떳하지 못한 짓인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 더군다나 상대는 한 아이의 엄마인 유부녀였다. 용철은 혼자서 감당 하지 못할 이 사실을 상민에게 밝힐지, 밝힌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휩싸인다. 며칠후 용철은 절차대로 정식에게 조사내용을 밝힌다. 아내의 외도가 확실해졌다는 것과, 아내의 외도 상대가 아내가 일하는 음식점 주위에 위치한 대기업의 젊은 간부라는 사실에 정식은 혼란스러워 한다. 가정에 헌신하던 아내를 믿으며 아내를 의심했던 기억을 지워보려던 정식은 확실해진 아내의 외도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낀다. 용철이 건네주는 미연과 상민의 외도 사진을 보며 격분 하던 정식은 당장에 라도 상민을 찾아갈 기세였다. 상민에게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용철은 정식을 진정시킨다. 용철은 정식에게, 이제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 절차를 밟을 거냐고 묻는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깨진 정식은 분노에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막상 용철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정식의 머릿속에 미연의 모습이 떠오른다. 용철은 머뭇거리는 정식에게 아내의 외도를 확실하게 정리해 줄 테니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제안한다. 뽀족한 수가 없는 정식은 그러겠다고 하며 돌아간다. 그날 저녁, 용철은 상민을 만난다. 용철은 상민에게 미연에 대한 이야기를 유도하지만 상민은 발뺌할 뿐이었다. 그러나 곧, 용철이 꺼내든 미연과 상민의 포옹 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고는 고개를 숙인다. 이윽고 입을 열기 시작한 상민은 눈물 섞인 하소연을 하기 시작한다. 상민은 자신이 여태껏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그런 자신에게 미연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왜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정리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미연 또한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다 여기는 지를 털어놓았다. 용철은 묵묵히 상민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상민에게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나지막히 말한다. 깊은 한숨을 소주잔에 떨어뜨린 상민이 고개를 떨군다. 얼마 후, 상민은 용철을 찾아온다.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그리고 그동안 달려오느라 지나쳤던 것들을 하나씩 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상민이 돌아간 후 용철은 정식을 만난다. 그리고 상민에게 들었던 미연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앞에서 불만을 표한 적도, 서운함을 토로 한 적도 없던 아내 미연이 자신과의 결혼에 불행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식은 미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사건이 정리된 후 용철의 머릿속에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상민의 모습과 지난밤 자신 앞에서 울던 상민의 모습이 겹쳐 떠오른다. 그렇게나 화려하고 빛나 보였던 상민의 인생도 실상은 초라함 투성이었다. 용철은, 언제나 강하고 당당하던 상민이 누구보다도 부러웠고 저도 것처럼 되길 바랬었다. 하지만 어젯밤 상민의 눈물이 머릿속에 떠오를수록 상민이 가

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용철은 자기 인생에 당당해지고 싶었다. 단 한번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던 용철은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낭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사직서를 작성한다.

2년 후, 용철은 공무원이 되어 당당하게 고향으로 내려간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도 곧 잘 하며 부모님과 답소를 나눈다.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다 집에 돌아온 용철은 집 앞 우편함에 꽂혀 있는 엽서를 꺼낸다. 엽서의 발신자 주소에는 상민의 이름이 적혀 있다. 엽서 편지에는, 여행길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1주년 기념으로 부모님께 소개 시켜드릴 거라는 내용과 함께 조만간 한국으로 들어가니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상민을 만나러 용철은 길을 나섰다. 거리를 걷어가던 중 용철은, 2년 전 자신에게 의뢰를 부탁했던 정식을 보게 된다. 아기를 안고 있는 정식의 옆에는 중학생 처럼 보이는 아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미연이 서있다. 그들을 보며 용철은 몇 초간 멈춰 섰다. 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용철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제 서야 용철은 눈길을 거둔다.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용철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 찬다. 몇 년 만에 만나게 되는 상민이 얼른 보고 싶어진다. 용철은 가벼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시나리오

S#1 상용 심부름 센터 사무실 / 낮

한눈에도 낡고 보잘 것 없는 사무실 집기들이다.
 용철, 까치머리로 컵라면을 먹고 있다.

울리는 전화벨.

용철 (라면을 급히 삼키고 책상에 놓여진 사무실 전화를 받는다) 상용 심부름입니다!
 (김빠지는) 어디요? 잘못거셨어요!! (전화기를 내려 놓는다 그러다 책상에 놓여 있
 는 휴대폰을 집어 든다)

휴대폰 화면에 동창회에 대한 문자 메시지가 가득 찬다.
 문자 메시지 마지막에는 ‘특히 용철이 너! 이번엔 꼭 좀 보자.’ 라는 문구가 입력되어 있다.
 용철, 한숨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컵라면을 먹기 시작한다. 그러다 서랍을 열고 통
 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한다.

용철 (한숨 쉬며) 이번 명절도 고향 가긴 글렀네

그때, 심부름 센터 직원 동료가 사무실문을 열고 들어온다. 용철, 통장 잔액에 정신이 팔린
 채 동료가 온줄도 모른다.

용철 (자신의 뒤에 동료가 온 것을 눈치 채지 못한 채 심란한 표정으로 통장을 본다.)
 동료 (고개를 빼서 용철의 통장을 보더니) 야 임마, 넌 4년 동안 돈 안 모으고 뭐했냐
 용철 (깜짝 놀라 통장을 덮고는 뒤를 돌아보며) 아 형! 왜 남의 통장을 몰래 봐요
 동료 (용철의 뒤에서 나와 자신의 책상으로 가며) 참 나, 내가 보고 싶어서 봤냐. 보이
 니 까 봤지. 근데 넌 잔액이 무슨 그렇게 없냐? 설마 통장이 그거 한 개는 아니지?
 용철 (빈정 상한듯) 버는 돈이 있어야 모으는 돈이 있죠. 쥐꼬리 만한 월급 저축 한다
 고 용꼬리 됩니까?
 동료 (넉살 좋게 웃으며) 핑계 대지마 임마.

그때, 용철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도착 음이 울린다.
 용철, 휴대폰을 확인한다. 휴대폰 화면에 상민이 보낸 문자가 뜬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냐? 술 한 잔 하자’

S#2. 포장마차 / 저녁 <현재 / 과거>

한강이 보이는 길거리 포장마차.

테이블엔 홍합탕과 파전, 소주 두병이 놓여있다.

마주보고 앉은 용철과 상민.

상민 (홍합탕 국물을 떠먹어 보더니) 야, 넌 무슨 술 좀 먹자고 하면 맨날 포장마차냐.

용철 (자기 잔에 술을 따라 마시며) 포장마차가 어때서. 술맛만 좋구만. (술을 입안에 털어 넣는다)

상민 야, 이런 곳 안주랑 제대로 된 곳 안주는 느낌부터 다르다니깐? (자신의 말에 관심 없는 용철을 보더니) 됐다 임마, 술도 마셔본 놈이 알지 (술을 마신다. 잔을 내려 놓고) 아, 너 이번에 고향 내려 가냐?

용철 (홍합탕 국물을 떠먹으며 고개를 젓는다.)

상민 하긴, 심부름 센터에서 일하는 자식 보면 부모님 마음이 편하시겠냐. 잘 생각 했다. 부모님께 용돈은 보내드리냐?

용철 (상민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넌 이번에 부모님 뵈러 가냐?

상민 (용철의 말에 머뭇. 용철의 시선을 피하며 파전을 젓가락으로 자른다) 아, 나 이번 명절 연휴에 해외 여행 좀 다녀오려고

용철 (고개를 들고 상민을 보며) 해외 여행?

상민 (용철의 시선을 피하며 숟가락을 홍합탕을 뒤적거린다.) 어, 평소엔 바쁘니깐 명절 연휴 때 말고는 시간이 없더라고. 오랜만에 외국물 좀 먹고 오지 뭐. 여유도 즐기

고
용철 (상민이 부러운 눈치, 고개를 숙이고 술잔에 술을 따른다. 상민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스스로가 싫다.)

상민 (말을 마치고는 술을 연거푸 두 잔이나 마신다.) 술맛 좋다 야,

S#3. 포장마차 인근 도로 / 밤

포장마차에서 나와 만취 상태로 어깨동무를 한 채 비틀 거리며 걷는 용철과 상민.

용철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며 헤벌레한 표정) 야 임마, 너 어릴 땐 그렇게 작더니 언제 이렇게 커서 임마. (술에 취해 헤헤 거리며 웃는다.)

상민 (용철과 같은 얼굴로 헤헤 웃으며) 야 그럼 난 평생 땅 꼬맹일 줄 알았냐 임마

어깨동무를 한 채 비틀 비틀 걸어가는 용철과 상민의 뒷모습. 주변의 가로수 거리 플라타너스 나무를 비추는 카메라,

용철과 상민의 얼굴 보여지면 초등학교 시절 어린 용철과 상민으로 바뀌어 있다.

S#4. 시골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 / 낮 (과거)

용철과 상민,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 가고 있다.

뛰는 뒷모습을 보면 상민이 용철보다 한 뼘 정도 키가 작다.

용철과 상민의 얼굴은 웃음으로 차있다.

용철 (뛰는 도중 상민을 보며) 야! 이따 운동장 철봉에서 만나자
 상민 (뛰는 도중 용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 밥먹고 바로 나갈게! 아! 나 아
 빠가 축구공 사주셨어. 우리 축구하자!
 용철 (신난다는 듯 웃으며) 그래 밥 빨리 먹고 나와!

S#5. 시골 마을 상민의 집 앞 / 오후 (과거)

용철과 상민, 상민의 집 대문 앞에서 둘 다 어두운 표정을 하곤 힘 없이 서있다.
 대문 옆에는 이삿짐이라는 문구가 적힌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

용철 (폴 죽은 목소리로) 중학교도 같이 다니는 줄 알았는데
 상민 (울먹거리며) 미안해. 나도 계속 너랑 같이 있을 줄 알았어
 용철 (고개를 들더니 상민을 보며) 서울 가도 여기 가끔씩 내려와야 해!
 상민 (고개를 들고 용철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응! 시간 날 때 마다
 올께!
 용철 (그제 서야 안심이 듯, 웃으며) 너 전학 간다고 나 잊으면 안돼
 상민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당연하지, 전화도 자주 할게
 용철 약속 하는 거다? 전학 가서도 잘 지내야 해
 상민 (활짝 웃으며) 용철이 너도 잘 지내야 해

S#6. 현재, 상민의 집 / 밤

상민이 술에 취한 채 비밀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
 으리으리한 거실을 지나쳐 침실로 들어가는 상민.
 고급 목재 가구들이 깔끔하게 배치 되어 있다.
 상민, 술에 취해 씻지도, 옷을 갈아 입지도 않은 모습 그대로 침대에 대(大)자로 엎드려
 뻗는다.

상민 (폭신한 이불에 얼굴을 묻은 채로 웅얼 거린다) 명절인데 가족도 안보고
 명절인데 나는 혼자 여행이나 가고. 명절인데... 어? (갑자기 버럭) 나도 우리 부모
 님 보고 싶은데 어? 어머니! 아버지! 명절인데!

상민, 그러다 잠 들었는지 곧 조용해진다.

잠든 상민의 얼굴위로

(상민母) 새삼스럽게 무슨 명절이니. 올 필요 없다. 바빠서 얼마 보지도 못
 할거야. 아! 돈 보냈으니깐 뭐 좀 사먹고 그래.

상민 (완전히 잠에 빠진 모습, 코를 곤다.)

S#7. 용철의 집 앞 길거리 벤치 / 밤

용철, 오래 된 듯한 빌라 앞 길거리에 배치된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혼잣말로 술주정

을 하고 있다.

용철 (부러움과 자격지심이 묻어난다, 고개를 숙인채 손가락질을 하며) 이상민 야 이새끼야. 너는 임마. 어 너 혼자만 그렇게 잘되고. 친구란 놈은 심부름 센터에서 죽치고 앉았는데. 너는 임마, 어? 너 혼자만 잘났지 이 새끼야. 어? 너 혼자만. 그래 임마. 너는 어릴 때부터 돈 많은 집에서 자라서 끝까지 잘살고, 나는 뭣 없는 집에서 자라서 나이 삼십 넘도록 땀 전 한 톨도 없고. 그래서 뭐, 어? 뭐 임마! (손을 내리더니 고개를 푹 숙인다.)

빌라 경비원, 경비실에서 나오더니 용철 근처로 가 용철을 이리 저리 살핀다.

경비원 (미간을 찌푸리고 용철을 살피더니) 어이 총각, 이백이호 총각아니여, 어이 총각. 일어나야지! 젊은 총각이 술먹고 이런데서 자면 안되는 거여. 얼른 일어나. 얼른. (용철을 흔든다.)

용철 (경비원의 말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팔을 들어 경비원의 손을 쳐낸다.)

S#8. 상민이 근무하는 대기업 근처 레스토랑 / 낮

상민, 깔끔한 정장 차림.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간다.

미연 (카운터에서 레스토랑 명함을 정리하다가 손님이 들어오자 고개를 숙이며) 어서 오십시오. (고개를 든다.)

상민 (웃으며 미연을 보고 있다.)

미연 (자신 앞에 서 있는 상민을 보며 살짝 웃는다. 카운터에서 나와 상민에게 자리를 안내해 준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상민 (미연의 뒤를 따라간다. 행복한 듯 웃는다.)

S#9. 카페 / 저녁

미연과 상민이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아있다.

웃으며 커피와 조각 케익을 먹고 있다.

미연 그럼 상민씨 회사이번 프로젝트도 상민씨가 맡은 거야? (입을 벌리며) 와, 진짜 대단하다.

상민 (웃으며)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아! 근데 미연씨는 명절 때 시댁 가죠?

미연 그렇겠지? 10년을 넘게 해도 제사 음식 하는 건 힘든 것 같아. 온몸이 쭈신다니까?

상민 (걱정스러운 표정) 그냥 주문하면 안되요? 요즘엔 제사음식이나 그런 것들 다 주문하던데?

미연 (입술을 삐죽 내밀더니) 제사 음식 주문하는 걸 시댁에서 허락 할 리가 없어. (턱을 괴고) 상민씨는 이번 명절에 해외 여행 다녀 온다고 했지?

상민 어? 아 응.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

미연 (상민에게 조각 케익을 떠먹여 주며) 부모님 뵈러 안가?
 상민 (미연이 떠먹여 주는 빙수를 먹으며 어설픈게 웃는다) 아 어차피 부모님 댁이랑 가
 까 워서 자주 뵈는데 뭐. 명절연휴 아니면 쉴 시간도 없고. 부모님께서도 이번 명
 절은 쉬고 싶다고 하셔서. (말이 많아진다.)
 미연 (웃으며) 그래그래. 이참에 피로랑 스트레스 다 날리고 와!
 상민 (미연을 따라 웃으며) 선물 사올게. 필요 한 건 없어?

S#10. 상용 심부름 센터 사무실 / 낮.

누군가가 상용 심부름 센터 문을 열고 들어온다. 40대 중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정식) 이
 들어온다.

정식 (사무실에 들어온 후 인기척이 없자 두리번 거리며) 저기..

그때, 잠에서 깬 심부름센터 직원이 정식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선다,

직원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일어나 정식에게 다가가며) 아, 예예. 상용 심부름 센터 입
 니 다. 어서 오십시오.
 정식 아, 안녕 하십니까
 직원 네,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전화 하셨어요?
 정식 아니요, 아.. 그.. (머뭇거리며)
 직원 네?
 정식 아내..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직원 (무슨 소리 인가 싶다) 아내분을요?
 정식 아 그니깐.. 요즘 들어서 아내가 좀 이상해 진 것 같아서..
 직원 (이해했다는 듯) 아 아, 아내 분의 외도를 부탁하려 오신 거죠?
 정식 아 근데 또 외도인지 확실 하진 않고요 (말이 많아진다) 제가 헛 다리 넘겨짚는
 걸 수도 있고..
 직원 (정식의 말을 끊고)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두리번 거리더니) 그건 용철이 전담
 인데.. 어디갔지?

그 순간 용철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직원 (용철을 보고 달려가며) 야 용철아! 너 임마 어디갔나 왔냐! 손님오셨는데
 (손님을 보며 녀살 좋게 웃는다) 아 여기 왔습니다. 이 친구에게 자세히 말씀하시
 면 됩니다.
 용철 (누구? 하고 정식을 쳐다본다)

[Cut To - 시간경과]

사무실 한 가운데에 자리잡은 탁자를 두고 용철과 정식이 앉아있다.

탁자 위에는 커피잔 두 개가 놓여 있다.

용철 (공책에 정식과의 면담 내용을 받아 적으며) 두세 달 전 쯤부터라고 하셨죠?
 정식 (커피를 마시다가 용철의 말에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아 예, 근데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게 그때부터고요. 그것보다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용철 (정식의 말을 받아쓰가며) 아, 그러니깐 두 세달 보다도 더 전에 아내분께서 외도를 시작 하셨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정식 예, 아 근데 또 확실한건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딴 놈을 만나는 건지 아니면 저 혼자 이러는 건지 (말끝을 흐린다)
 용철 아, 네네. 그렇죠. 아직 확실하진 않죠.
 정식 예, 근데 제 아내가 확실히 이상해지긴 했거든요.
 용철 (정식에게 집중하며 몸을 정식쪽 으로 뺀다.)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식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밥은 꼬박 꼬박 차려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가족들 아침은 팽거 치고 자기 도시락만 싸서 땡 나가더라고요.
 용철 (정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도시락이라.. 아내분께선 아침부터 왜 도시락을 만드느 걸까요?
 정식 (답답하다는 표정) 그게, 제가 저번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직장 동료들이랑 아침같이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철 (고개를 가우뚱 하며) 직장 동료들이요?
 정식 아, 예. 저희 아내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거든요, 이제 이년 쯤 됐나? 집에서만 있기 심심하다며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용철 그럼 직장 동료 분과?
 정식 (고개를 저으며) 제가 한번 밥 먹으러 가봤는데, 직원 분들이 죄다 여자분들이더라고요.
 용철 아 (고개를 끄덕인다)
 정식 아, 그리고 어느 날부터 미용실을 그렇게 줄기차게 다니더라고요.
 용철 미용실이요?
 정식 아 예, 예전에는 머리 자를 때 빠곤 미용실을 가라고 해도 안가더니, 요즘엔 시간 만나면 미용실을 들락날락 하질 않나, 이번 달에 산 화장품들만 해도 아주 몇 백개는 될 겁니다.
 용철 음.. (정식의 말을 받아 적는다)
 정식 아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아요.
 용철 그렇죠, 다른 분과 연락을 해야하니깐.
 정식 그 맨날 서랍에 박혀있던 휴대폰을 이제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니니깐 제 입장에 서는 이상 할 수밖에 없죠.
 용철 (고개를 끄덕이며 정식의 말을 받아 적는다)
 정식 아, 그리고
 용철 (정식의 말을 끊으며) 아 여기까지만 알려주셔도 충분합니다.
 정식 아, 그렇습니까?

용철과 정식, 쇼파에서 일어 선다.

정식 아무쪼록,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용철 네, 최대한 빨리 조사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혹시나 아내 분께서 외도를 하시
는게 아닐 수도 있으니깐 너무 큰 의심은 가지지 마시고요.

정식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가며) 안녕히 계십시오

용철 예, 조심히 가세요!

상용 심부름 센터 직원, 나가는 정식에게 함께 인사를 하곤 정식이 나가자 말자 용철에게
다가온다

직원 야, 돈 좀 될 것 같냐?

용철 (정식의 말을 받아 적은 공책을 펼치며 책상으로 간다.) 그냥요.

직원 그냥이 뭐냐 그냥이, 그나저나 돈 좀 되는 큰 건 이어야 할 텐데.

용철 에이, 돈이 안 되더라도 외도가 아니길 바래야죠.

직원 (용철을 향해 입을 뻐죽거린다) 저러니깐 돈을 못 벌지.

S#11. 미연이 근무하는 레스토랑 / 낮

용철이 미연의 사진을 들고 레스토랑을 기웃거리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간다.

미연,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용철이 들어오자 의자에서 일어선다.

미연 어서 오십시오. (용철에게 자리를 안내한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용철 아 네, (미연의 뒤를 따라가며 레스토랑을 살펴본다.)

자리에 앉은 용철에게 미연이 메뉴판을 건넨다.

미연 주문 시 벨을 눌러 주십시오.

용철 아, 네

미연, 카운터로 돌아간다.

용철, 사진과 미연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Cut To - 시간경과]

용철, 포크로 돈까스를 집어 먹으며 미연을 살핀다.

미연, 손님에게 자리를 안내하거나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용철, 밥 먹는 중간 중간 공책을 꺼내 무언가를 기록한다.

S#12. 상용 심부름 센터 사무실 안 / 밤

용철, 불 꺼진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다.

미연의 외도에 대해 조사하는 듯하다.

용철, 피곤한지 기지개를 키며 간편하게 스트레칭 한다.

S#13. 미연이 근무하는 레스토랑 근처 벤치 / 낮

용철이 벤치에 앉아 미연이 레스토랑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

그때, 미연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남자.

미연과 남자가 웃고 있다.

거리가 멀어 미연의 옆에 있는 남자가 누군지 잘 보이지 않는 용철.

미연과 남자의 뒤를 따라간다.

S#14. 가로수 길 / 낮

상민과 미연, 웃으며 걷는다.

용철, 조심스럽게 둘의 뒤를 따라간다.

S#15. 카페 / 낮

상민과 미연, 주위 카페로 들어간다.

상민과 미연을 뒤 따라 가는 용철.

언뜻 본 미연의 옆에 있는 남자가 상민과 닮았다.

용철,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둘이 들어간 카페로 들어간다.

미연과 남자가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용철, 남자의 뒷모습만 보인다.

잠시 후, 남자가 웃으며 옆을 쳐다본다.

남자, 용철의 예상대로 상민이 맞다.

용철, 놀란 표정을 하다가 상민을 몇 번이나 쳐다보다 카페를 나간다.

카페 쇼 윈도우를 통해 상민이 보인다.

미연과 조각 케익을 먹여주며 웃고 있다.

상민에게 전화를 거는 용철.

용철 (상민에게 전화를 건다 수화음이 들린다 초조한 표정)

상민 (미연과 웃으며 이야기 하다가 휴대폰에 전화가 오자 전화를 받는다) 어, 용철아

용철 (카페 쇼 윈도우 너머 보이는 상민을 보며) 아,, 어.. 상민아

상민 뭐라고? 안 들려.

용철 아니야. 이따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는다)

상민 뭐라고? (전화가 끊긴 걸 확인 하더니 휴대폰을 집어 넣는다 다시 미연과 이야기 한다)

충격을 받은 용철, 전화를 끊고는 힘없이 걸어간다.

S#14. 상용 심부름 센터 사무실 / 낮

용철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직원이 용철을 보며 반갑게 인사한다.

직원 어이 용철아, 오늘은 뭐 좀 알아냈나?

용철 (직원이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대답이 없다)

직원 어이 용철아, 뭐 알아냈냐니깐?

용철 (책상으로 가 앉는다. 열빠진 표정)

직원 뭐야 짜식, 외도 조사 의뢰 한 두번 해보냐? 정리해서 의뢰자한테 연락해 임마.

용철 (힘없이) 네.. (휴대폰을 꺼내 정식의 번호를 누른다. 그러다 지우고 상민의 번호를 누른다. 그러다 휴대폰을 덮는다)

[Cut To - 시간경과]

용철과 정식, 상용 심부름 센터 사무실 탁자를 두고 쇼파에 앉아있다.

정식, 긴장된 표정이다.

용철, 이때까지 찍은 사진들과 기록한 서류들을 탁자위에 펼친다.

정식 아니, 벌써 다 알아내셨습니까? (용철의 얼굴을 살피며) 저희 아내, 외도가 아닌 겁니까?

용철 아.. (착잡한 표정으로 사진을 펼쳐 보인다) 여기. 보시면 알겁니다.

정식 (용철이 펼쳐 놓은 사진을 들어 살펴본다 할 말을 잃은 듯) 그..이게 그..

용철 강미연 씨가 근무하시는 레스토랑 근처에 위치한 ○○기업 아시죠? 그 회사 간부가 외도 상대 더라구요. 나이는 32세로 젊은 나이에 승진까지 성공 한 사람이구요. 자세히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지만 추측 상 강미연 씨의 외도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식 (분노)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죠?

용철 (입술을 살짝 깨문다 난감하다)

정식 (목소리가 커진다) 이여자가, 어린 나이에 시집왔다고 하고 싶다는 거 다해줬더니. 뒤에서 이렇게 뒷통수를 치고 있었구만?

용철 (묵묵히 정식의 말을 듣고 있다)

정식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근데 참고 삽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요. 하루하루 아 되면 일어나기 싫고 회사 가기도 싫습니다. 혼자면 하고 싶은 거 다했죠. 돈 몇푼 받는 월급쟁이로 하루하루 버티겠습니까? 근데 아내는 외도에다 집안 풀엔 관심도 없어져가고.

용철 (정식을 쳐다본다)

정식 (분노와 원망이 섞인 표정과 목소리, 흥분된 상태로 방방 뛰며) 저요, 저 월급 몇푼 안 되는 회사원 이라 딱히 해준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못해준 것도 없습니다. 그 여편네가 요리 배우고 싶다고 난리를 치길래 요리 학원도 끊어주고, 아이 낳고

지 생활을 잃은 것 같다고 하길래 좋아하는 운동 실컷 하라고 헬스장도 끊어 줬습니다. 집에서만 있기 갑갑하다는 소리에 레스토랑 일나가는 것도 허락했고요. 실컷 다해주고 나니 바람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지보다 어린 남자랑?

용철 그렇죠..외도는 말이 안되죠..

정식 이 정신 나간 여편네를 그냥

정식을 불안하게 보고 있던 직원이 달려와 정식을 진정 시킨다.

직원 아 저기 진정 하세요!

용철, 며칠 전에 만난 상민의 얼굴이 떠오른다. 심란한 용철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 용철의 회상이 시작된다.

S#15. 용철의 과거 회상, 식당 / 낮

용철과 상민, 해장국을 먹고 있다.

상민, 배가 고픈 건지 전날 먹은 술 때문에 속이 쓰린 건지 허겁지겁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

용철 (밥을 먹는 상민을 보며) 야, 넌 결혼 안하냐?

상민 (밥을 먹다말고 용철의 말에 사례가 들린다) 썩썩

용철 (물을 건네며) 야, 물마셔. 물.

상민 (용철이 건네는 물을 별컹별컹 마신다) 결혼은 무슨.

용철 너 이렇게 아침마다 밖에서 아침 먹는 것도 그렇잖나, 결혼하면 따끈한 집 밥 먹고 나올 수 있을 텐데. 너 정도면 지금 당장 결혼 계획 잡아도 무리 없을 거 아냐?

상민 (손을 저으며) 에이, 난 아직 결혼 생각 없어. 결혼 하면 평생을 아내한테 잡혀 살 거 아냐. 얼마 안남은 지금이라도 총각 생활을 즐겨야지, 결혼은 무슨

용철 (고개를 끄덕이며) 하긴. 너는 혼자서 할 거 다하고 사니깐 뭐. 그래 밥이나 먹자. (밥을 먹는다)

상민 (고개를 들어 밥을 먹는 용철을 쳐다보다가 다시 밥을 먹는다)

S#16. 현실, 상용 심부름 센터 사무실 / 낮

정식, 어이가 없어 할 말도 없는 듯 말없이 쇼파에 앉아있다.

용철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

정식 (용철을 쳐다본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가서 그 여편네랑 아주 끝장을 볼까요?

용철 저 (머뭇거리며) 혹시 아내분과 이혼할 생각이십니까?

정식 이혼 (순간 말을 멈춘다) 이혼..이혼 말입니까? 그 법원가고 도장 찍고 납납되는..?

용철 자녀가 계신다고 하셨잖습니까. 물론 심정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 더 생

각해보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식 (이혼이라는 말에 생각이 많아 진 듯하다)
 용철 아내분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고 또 자녀분도 계시니 이렇게 함부러 단정지을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정식 아.. 맞아요 우리 지용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거든요.
 용철 (조심스레) 그래서 말인데.. 며칠간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정식 (용철을 보며) 며칠간요?
 용철 아 네, 아내분의 외도는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며칠간이면 됩니다. 그 때까지 김 선생님도 생각 좀 해보시고요
 정식 (의아) 며칠 만에 그 외도가 정리가 될까요?
 용철 저만 믿고 맡겨 주세요.
 정식 (용철을 쳐다본다)

[Cut To - 시간경과]

정식이 나가고 용철이 책상으로 간다. 직원, 용철 에게 온다.

직원 (용철이 자리에 앉자마자) 야, 너 뭐야
 용철 뭐가요
 직원 우린 그냥 의뢰만 조사해주고 돈 받으면 끝나는 거야. 니가 무슨 외도를 정리해
 용철 알아서 할게요.
 직원 너 그러다가 일 커지면 수습 어떻게 하려고 그래 대기업 임원이라며.
 용철 (직원을 쳐다보며) 제 친구예요.
 직원 (놀란다) 뭐?
 용철 제 친구라고요. 남부러울 것 없는 애인데다가 결혼 생각도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애인도 물론 없고. 유부녀를 만나면서 숨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애 절대 아니예요. 친구라고 편드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직원 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임마. 니 친구 문제라고 진작 말을 하지. (자기 자리로 돌아 간다)
 용철 (두 손으로 얼굴을 비빈다)

S#17. 포장마차 / 저녁

용철과 상민, 포장마차 테이블을 두고 마주보고 앉아있다.
 테이블에는 소주 두병과 오뎡탕, 순대볶음이 놓여 있다.

상민 (젓가락으로 순대볶음을 집어먹으며) 야, 이런 것들도 자꾸 먹으니깐 땡긴다. 중독성 있다니깐? (심각한 표정인 용철을 보며) 넌 왜 무게 잡고 앉아 있어 임마.
 용철 (잔에 소주를 따라 마신다)
 상민 (용철의 잔에 소주를 따라주며) 무슨 일 있냐?
 용철 상민아.

상민 왜?
 용철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냐?
 상민 (오 탕탕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용철의 진지함에는 관심 없는 듯) 뭘 소리야
 용철 나 얼마 전에 어떤 의뢰가 들어왔었거든.
 상민 얼마만이나 니 의뢰가? 그래서. 돈 좀 벌었냐?
 용철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상민 (순간 멈칫) 그래서?
 용철 난 또 어떤 열빠진 새끼가 유부녀를 꼬시나 싶었지. 애 키우는 엄마한테 뭘 뜯어
 내겠냐 하고
 상민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용철 어린 나이에 시집왔다고 아내를 꽤 아끼는 눈치던데. 열네살 된 아들도 있더라고.
 이혼 얘기 나오니깐 말이 없어지더라.
 상민 (말이 없다)
 용철 상민아. 그만 뒤라.
 상민 (잔에 소주를 따라 마신다) 어떻게 알았냐

[Cut To - 시간경과]

용철, 말없이 소주만 마신다.
 상민, 착잡한 표정이다.

상민 근데 그 여자랑 얘기를 하는데, 딱 그 느낌이더라고. 내가 어릴 적부터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 난 한 번도 엄마랑 그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나. 나 어릴 때 이
 사 간 거 기억하냐? 그땐 너라도 있었지, 이사 가고 나서는 허구헌 날 공부만 하고
 내가 형제가 있냐. 뭐가 있냐. 그저 부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나니깐 명문고,
 명문대, 대기업은 다 들어갔는데 정신 차려 보니깐 아무도 없더라고. 그때 만난 사
 람이 미연 씨다. 미연 씨는 나한테 그런 존재더라. 가족같이 포근한. 내가 기댈 수
 있는. 내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
 용철 (말이 없다 그저 소주만 따라 붓는다)
 상민 근데 미연씨도 날 보면서 그런 생각 했을 거야. 많이 외로워 보이더라고. 변명이고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미연씨, 결혼을 후회하더라고. 어린나이에 시집가
 서 못한 것도 많고 참은 것도 많다고. 그냥 미연씨를 보면 공감이 가더라. 같이 외
 로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 난 그냥 그랬어.
 용철 (말이 없다)
 상민 정리 해야겠지?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는 사람인데.
 용철 (술을 마신다)
 상민 고맙다. 처음 해봤다 이런 얘기.
 용철 (고개를 들어 상민을 본다)
 상민 난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으니깐 사람들은 다 내가 행복한 줄 알더라. 그래서 말
 못했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기분인지.
 용철 (허탈 한듯 웃는다)

상민 정리할게.

용철 그래.

상민, 희미하게 웃는다.

용철, 상민을 보며 옅은 한숨을 쉰다.

S#18. 상용 심부름 센터 사무실 / 낮

용철, 컴퓨터 타이핑 작업을 하고 있다.

용철의 휴대폰에 문자 도착음이 울린다.

용철 (타이핑을 멈추고 문자를 확인한다)

<상민에게서 도착한 문자.>

미연씨랑 정리했다. 고맙다. 미안하고. 정리하는 김에 내 인생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동안 지나친 것 들이 너무 많네. 조만간 한번 만나자.

용철, 문자를 보곤 한숨을 쉰다.

S#19. 카페 / 낮

용철,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다. 잠시 후 정식이 들어온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누군가 찾더니 곧 용철을 발견하고 용철의 앞에 가 앉는다.

용철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정식 아닙니다. 제가 다 죄송하지요.

용철 그 며칠전에 약속 드렸던 아내분의 외도는 정리 해드렸습니다.

정식 아, 어제부터 다시 아침도 차려주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 온 것 같더니.. 감사합니다

용철 아 아닙니다.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죠. 아, 그런데 김 선생님이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정식 예?

용철 아내분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요

정식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용철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내분과 외도를 하신 상대방 말씀으로는 아내분께서 많이 외로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못해본 것도 참은 것도 많고..

정식 아..그런 말을 했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용철 자세한 건 아내분과 직접 말씀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식 네.. 그래야겠네요

카페 쇼윈도우 너머로 정식과 용철의 모습이 보인다.

S#20. 길거리 / 오후

용철, 무표정으로 거리를 걷는다.
사람들, 용철을 지나쳐 바쁘게 걸어간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용철, 생각이 많아 보인다.
용철의 머릿속에 정식과 상민이 떠오른다.

(정식)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근데 참고 삽니다. 아내가 있 고 자식이 있으니깐요.
하루하루 아 되면 일어나기 싫고 회사 가기도 싫습니다.
혼자면 하고 싶은 거 다했죠. 돈 몇푼 받는 월급쟁이로 하루하루 버티겠습니까?

(상민) 그저 부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나니깐 명문고, 명문대, 대기업은 다 들어 갔는 데 정신 차려 보니깐 아무도 없더라고. 그때 만난 사람이 미연 씨다. 미연 씨는 나 한테 그런 존재더라. 가족같이 포근한. 내가 기댈 수 있는. 내 얘기 들어주고, 공 감해주는 그런 사람.
근데 미연씨도 날 보면서 그런 생각 했을 거야. 많이 외로워 보이더라고. 변명이고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미연씨, 결혼을 후회하더라고. 어린나이에 시집가 서 못한 것도 많고 참은 것도 많다고. 그냥 미연씨를 보면 공감이 가더라. 같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 난 그냥 그랬어.

용철, 걸음을 멈춘다. 휴대폰 전화벨이 울린다.

용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면 액정에 ‘엄마’ 라는 문구가 뜬다) 어, 엄마. 어, 엄 마는 잘 지내죠? 나야 뭐 잘 지내지. 아, 이번 명절은 좀 바빠요. 그냥 이런 일 저런일.. 네, 알겠어. 다음번엔 꼭 갈게. 알겠다니깐. 네. 엄마도요. 아버지한테도 안부 전해 줘요. 네. 들어가요. 네. (전화를 끊는다 생각이 많아진 표정 무언갈 결심 한 듯 방향을 바꿔 뒤를 돌아 걷는다. 조금 더 빨라진 걸음.)

S#21. 상용 심부름 센터 사무실 / 낮

용철, 사무실 안으로 뛰어 들어온다. 그러더니 책상으로 달려가 서랍 안에서 무언갈 찾는다.
직원, 용철을 보더니 뭐하냐는 표정을 짓는다.
용철,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든다.
봉투 클로즈업하면, 사직서 라 써있다.

용철 (봉투를 들고 직원에게 가며) 이거요.
직원 (이게 뭐냐는 표정) 이게 뭐냐?
용철 사직서요. (빨리 받아 라는 듯 사직서를 내민다)
직원 (떨떠름하게 사직서를 받아든다) 사직서?
용철 맨날 망설이면서 쓰고 지우고 서랍안에 모셔뒀거든요.
직원 (용철을 보며) 너, 일자리 구했냐?

용철 구해보려고요. 평생 명절마다 혼자 있을 순 없잖아요.
 직원 (웃는다) 드디어 결심했냐? 나가라고 해도 망설이더니. 취업준비 열심히 해 임마.
 구직 실패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니 말마따나 꼭 제대로 된 직장 구하길 바란다.
 용철 (웃는다) 감사합니다.

S#22. 2년 후, 시골 용철의 부모님댁 / 낮

용철의 부모님과 용철,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용철父 직장생활은 안 힘드냐? 맨날 야근하고 그런거 없냐?
 용철 괜찮아요. 일도 즐겁고요.
 용철母 니가 공무원 될 줄 누가 알았냐. 맨날 쓸데없는 일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나라 일
 하고 있었어. 내새끼.
 용철 (웃는다 그러더니 옆 의자에 놔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건 낸다) 여기요,
 용철父母 (봉투를 건네받곤) 이게 뭐냐?
 용철 (밥을 먹으며) 첫 월급 기념이요. 그동안 한 번도 못 드렸잖아요. 자식이 드리는
 용 돈.
 용철母 (봉투를 용철에게 다시 주며) 야, 너 얼마 번다고 이걸 쪼개서 주냐. 나중에 너 여
 유 있을 때 줘 이 녀석아.
 용철 엄마도 참 (다시 봉투를 드리며) 빨리 받으세요. 자주 뵙지도 못하는데.
 용철父 (웃으며) 살다보니 아들 녀석이 주는 용돈도 다 받네. (용철母를 보며) 아 당신 뭐
 해, 줄 때 빨리 넣어둬 이 사람아. 고맙다. 아들아. 허허(웃는다)
 용철母 아유,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쓰나. 고맙다. 내 아들. 아껴 쓸게.
 용철 (부모님을 보며 환하게 웃는다)

[Cut To - 시간경과]

용철,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한다.

용철母 며칠 좀 있다 가지. 너 혼자 산다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을거 아냐
 용철 괜찮아요. 요샌 혼자 사는 사람이 더 잘 챙겨먹어.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저
 이제 가요!
 용철父 (방에서 나오며) 벌써 가냐? 좀 더 있다 가지.
 용철 지금 가도 차 막힐 걸요. 조만간 또 내려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용철父 그래. 조심해서 올라가라. 전화 좀 자주하고
 용철 (웃는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보며) 엄마, 저 가요!
 용철母 아유 그래, 조심해서 가고
 용철 네!

용철이 가고, 배웅을 하고 온 용철의 부모님이 담소를 나눈다.

용철모 용철이 얼굴이 싹 달라졌어. 그치? 예전엔 통 웃지도 않더니.

용철부 확실히 지가 지한테 당당해 지니깐 표정부터 밝아졌네, 죽기 전에 자식 얼굴 보
나 했더니 이제 용돈을 다 주고.

용철모 (웃으며) 이제야 지 인생 똑바로 사네 어유 이쁜 것.

S#23. 용철의 집 아파트 우편함 / 저녁

용철, 아파트 우편함에서 자신에게로 온 엽서를 꺼낸다.

상민에게서 온 편지이다.

편지 클로즈업해 보면,

(상민 NA) 용철아, 잘 지내냐? 너 이사한 주소 여기 맞지? 주소 잘못 보내는 걸까봐
불안하네. 나 이번 달에 한국 들어 갈 것 같다. 여행 중에 만난 여자 친구
랑 벌써 일주년이다. 시간 진짜 빠르지? 일주년 기념으로 부모님께 인사
드리려고. 한국 가는 김에 시간 되면 잠시 만나자. 보고 싶네.

용철, 상민의 편지를 읽고 환하게 웃는다.

S#24. 횡단보도 / 낮

용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상민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화창한 날씨에 가로수 길 나뭇잎들도 살랑거린다.

용철 (전화를 하며) 어, 아 그래 그럼 거기서 보자. 그래. 야 이상민, 벌써 나한테 형수
님을 소개시켜 주냐 (웃으며) 하하. 그래. 이따 보자. 그래 (전화를 끊는다)

용철, 전화를 끊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며 거리를 구경한다.

그때, 용철의 눈에 정식과 그의 가족들이 걸어가는 것이 들어온다.

정식은 갓난아기를 안고 걸어간다. 그의 옆에 있는 미연은 웃으며 걸어가고 있고 중학생처
럼 보이는 남학생이 그들의 옆에서 함께 웃으며 걸어가고 있다.

용철, 그 가족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잠시 후, 횡단보도의 빨간 불이 초록 불로 변한다.

용철, 정식의 가족들에게 시선이 빼앗겨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횡단
보도를 건는다.

걸어가던 용철의 얼굴에 점점 웃음이 번진다.

용철, 살짝은 빠르게 건는다.

여전히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다.